

禮安 君子里의 後彫堂 研究

徐 致 祥

(東明情報大學校 建築學部 教授)

1. 머릿말

後彫堂은 禮安 君子里 光山金氏 宗宅에 딸린 별당이다. 군자리는 고려후기에 신라왕실의 후예였던 光山金氏 일파가 옮겨와 대대로 복거했던 향리였다. 그러다 1974년의 안동댐 공사로 수몰될 위기에 처하자 살림집과 別廟, 別堂, 別墅, 廚舍 등 주요 건물들을 옮겨 와 지금의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

禮安 땅은 일찌기 禹倬(1263-1343)이나 李賢輔(1467-1555), 李滉(1501-1570)과 같은 賢者高士의 은거지로 이름난 곳이다. 입향조 金孝盧(1455-1534)도 과거에 급제했으나 燕山朝의 혼란을 피해 이곳에 은거했다.¹⁾ 가운이 융성해지고 士族들과의 교류와 통혼으로 이 지역의 대표적인 사대부 가문으로 발전한다.²⁾ 그러나 이 가문은 대대로 벼슬을 사양하고 산림에 은거해서 학문에 매진하는 것을 신조로 삼았다. 특히 鄭述(1543-1620)가 金孝盧의 손자들로 退溪의

문하생들이었던 소위 七君子를 가리켜 '외내에 군자 아닌 분이 없다'³⁾는 말로 이들의 처신을 칭송한 데서 마을 이름도 군자리로 불리게 되었다.

이들은 정침과 家廟를 지어 유교적 이념을 실천하는 공간으로, 別墅를 지어 산림군자가 자적하는 공간으로 삼았다. 그런 점에서 君子里는 致仕客의 은둔이나 재기를 위한 한시적 거처이기 보다는 스스로 宦路와 담쌓고 산림에 은거했던 조선사대부들의 歸去來 정신을 담고 있던 世居地라 하겠다.

지금 남은 건물 중에는 임란 이전에 건립되어 당시의 건축제도와 법식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가 적지 않다. 비록 새 터로 옮겨지어졌지만 건축사적으로 귀중한 遺構들이 아닐 수 없다. 그 중에서도 後彫堂은 유교적 祭儀의 모범을 보여주는 祭廳으로서 건립연대나 건축양식 면에서 크게 주목되는 유구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건물의 초창 연대도 밝혀지지 않았고 실측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後彫堂에 대한 건축사적 의

1 烏川 『光山金氏略史』, 光山金氏禮安派門中, 1999, p.17
 2 『光山金氏 烏川古文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p.5, 崔承熙, 『光山金氏禮安派宗宅古文書 解題』,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嶺南大學校出版部, 1990, p.224에 '金緣·金綏兄弟代에 와서는 家勢가 富裕한데다가 子孫이 번창하여 李賢輔·李況·金淡·李容·琴梓 등 家門과 인척 관계를 맺어 禮安의 代表的인 士族으로 발전한다.'

3 『烏川君子里』, 烏川文化財移建記念事業會, 1993, p.66, 金祖淳 撰, 『文純公諱富弼諡狀』 '寒岡鄭文穆公嘗歎 曰凡人一家難盡善 烏川一里非君子人者'

의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먼저 실측조사를 통하여 건축도면을 작성함으로써 연구를 위한 자료를 마련하는 한편, 문헌조사를 통해서 건립연대를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서는 光山 金氏 가문의 유교적 정신에 주안하여 후조당의 건축유형과 특성 및 건축사적 가치를 밝히고자 한다.

2. 君子里의 儒敎의 理念

淸風高趣로 향리에 문혀 유교적 이념을 실천하는 歸去來 정신은 조선사대부들의 일관된 생활구호였다.⁴⁾ 이러한 정신은 일찍이 고려 때 淸平山에 숨어 自樂했던 李資玄(1061-1125)이나⁵⁾ 왕에게 극간하고는 禮安 땅에서 자적했던 禹倬(1263-1342)⁶⁾에게서 찾아진다. 李滉도 陶山으로 돌아와 歸去來의 늦었음을 뉘우치고 다시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李滉은 禹倬을 향사할 易東書院의 건립을 주도했으며 이곳에 은거해 있던 李賢輔와 깊히 교류했다. 이단에 대해서 엄격했던 李滉이었지만 禪·道로 일관한 李資玄을 높게 평가했듯이 歸去來는 조선사대부들의 보편적 관념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이 가문도 예외는 아니어서 江原道觀察使를 거쳐 慶州府尹 재직 중에 죽은 金孝盧의 장남 緣(1487-1544)를 빼면 후손들 대부분은 일생을 향리에서 보냈다. 특히 차남 綏(1491-1555)는 아예 벼슬을 단념하고 산림군자로서 자족했다. 그는 유교적 규범을 철저하게 실천하면서 『需雲雜方』이라는 料理書를 집필했을 정도로 산림생활에 자적했다.

이러한 정신은 金孝盧의 손자들인 富仁(1512-1584), 富弼(1516-1577), 富信(1522-1566), 富儀(1525-1582), 富倫(1531-1598), 琴應夾, 琴應燾 등 소위 七君子 대로 오면서 크게 칭송

받는다. 모두 退溪의 문하생들로 富仁은 韓巖의 사위이기도 했으므로 지척거리에서 江湖歌道를 실천하던 退溪와 韓巖⁷⁾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은 당연했다.

특히 後彫堂 주인 富弼(1516-1577)은 학문과 효성으로 명망이 높아 매번 벼슬이 내려졌지만 마음은 옛 淸流高士들의 은거에 두고 있었다.⁸⁾ 1568년과 이듬해에 각각 孝陵參奉과 靖陵參奉으로 除授되었다. 서울에 있던 스승 退溪가 편지를 보내서 出仕를 권했으나 시로 회답할 뿐이었다.⁹⁾ 그 뜻이 氷雪의 梅香과 같다는 내용으로 退溪가 보낸 和答詩¹⁰⁾가 그의 정신을 잘 말해준다 하겠다. 그는 스승 退溪가 죽자 陶山書院의 창건에 누구보다 앞장을 섰다. 서원 터를 직접 고르다가 하면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답을 내놓는 등 공사전반에 깊이 관여했다고 한다.

富儀도 退溪의 권유로 易東書院의 초대 山長의 중책을 맡았으며,¹¹⁾ 증손 圻는 두 번에 걸쳐 陶山書院의 院長을 맡았다.¹²⁾ 後彫堂을 비롯한 군자리의 별당과 별서 현판도 대부분 退溪와 韓巖이 쓴 것들이다. 이들은 군자리의 빼어난 경치와 함께 七君子의 정신과 처신에 손색없는 歸去來處임을 칭송하고 있다.

이와 함께 退溪¹³⁾와 蔡濟恭¹⁴⁾, 金祖淳¹⁵⁾ 등이

7 崔珍源, 앞 책, p.9, 또 『嶠南誌』 卷之十二 人物條에는 '李賢輔永川人 號巖巖 燕山朝進文檢閱 忤旨推配 丙寅放還 以戶參致仕 中廟嘉其恬 退授中樞 明廟陸崇政 降書褒美 天下大老當世 元龜諡孝節有文集 李滉平生尊仰 嘗以大先生稱之撰狀'이라 하여 退溪는 그의 이러한 歸去來 정신을 평생토록 존경해 마지 않았다.

8 『烏川君子里』, p.66, 金祖淳 撰, 「文純公諱富弼諡狀」, 「嘗有通諱屈原岳飛傳遙憶河西聽松翁之句 其悽切慷慨之心有不可掩者矣」

9 『烏川君子里』, p.66, 金祖淳 撰, 「文純公諱富弼諡狀」, 「爲向山雲寄一語 何心藏壑又昇空 雲言舒捲雖由我 亦在神龍變化中」

10 李滉, 『退溪集』 卷五, 「後彫主人堅素節 除書到門心不悅 坐對梅花氷雪香 目擊道存吟不輟」

11 『烏川君子里』, p.75, 朴樾 撰, 「挹淸亭諱富儀墓碣銘」, 「初易東書院訖工 鄉賢長者不爲不多 而先生必以公爲山長 公固辭不許 其爲所重類此」

12 『烏川君子里』, p.90, 李世澤 撰, 「北匡諱圻行狀」, 「月川推公爲山長委任敦事 公殫誠經...帶院任三年不遷」

13 『烏川君子里』, p.51, 李滉 撰, 「生員韓叟諱孝盧墓碣銘」

4 崔珍源, 『國文學과 自然』,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6, p.11

5 崔珍源, 앞 책, p.21

6 『嶠南誌』 卷之十二, 許晟社, 1985, p.653 人物條 '忠烈朝進文 初調寧海監察糾正 時忠宣蒸昌院妃 倬白衣持斧 詣闕上疏 近臣展疏 不敢讀乃厲聲 叱之左右 震慄王有慚色 退老本縣 忠肅嘉其忠義 再召不起'

쓴 行狀에는 이 가문 사람들의 유교적 이념과 정신이 유달리 강조되고 있다. 後彫堂 창건을 즈음해서 지극한 孝誠과 祭禮에 대한 이 가문의 엄격함이 있었고 후대까지 그대로 전승되었음¹⁶⁾을 강조했다. 특히 증손 垓(1555-1593)는 누구보다 朱子의 『家禮』에 철저했던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李象靖이 쓴 『嶺南左道義兵大將垓行狀』에는 그가 예법을 존중하여 『家禮』의 규정에 너무도 철저해서 鄉里에서도 가장 모범이었다¹⁷⁾고 극찬했다. 모두 향리에 묻혀서 유교적 이념의 근간인 祭禮의 절차와 법식을 원칙대로 고수했던 이 가문의 정신을 반증하는 예들이다.

3. 後彫堂의 沿革과 現況

3-1. 1567년의 初創

後彫堂은 임란 전에 건립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초창에 관한 상량문 등의 기록은 발견된 바는 없다. 초창 때 어떤 규모와 용도로 지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이후 변화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다만 富弼 대에 건립되었음을 근거로 임란 전에 지어졌다거나, 宣祖年間으로 보는 데 그쳤다. 구체적으로는 退溪가 낙성식에 참석했다 하여 대략 1560년경으로 보기도¹⁸⁾ 하나 근거가 없다. 학술적 가치로 보면 건립연대의 규명은 가장 시급한 과제였던 셈이다.

그러다 최근 증가에 보존되어 온 分財文記 중에 재산상속을 증빙하는 「傳係文記」가 발견

되었다. 富弼이 아우 富儀의 아들 垓를 양자로 들인 후 성장함에 따라 垓에게 재산을 상속시킨다는 뜻을 1567년에 기록한 것이다. 財主와 證人이 쓴 것과 함께 禮安縣監이 立案하고 手決한 세 문건을 합친 것인 만큼 어떤 기록보다 정확하고 신빙성이 크다. 각기 「(頭缺)三歲前收養子老眉處(以下 缺)」와 「丁卯十二月初六日縣接生員金富弼年五十二」, 「同日縣接生員琴應夾年四十二生員金富倫年三十七」이란 제목으로 합철된 이 문건에는 宗家와 祠堂의 건립을 시사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를 보면

너는 우리를 父母라 부르고 너의 아버를 叔父라 불렀던 것이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잘못 불렀던 경우가 없었음에 우리는 참으로 哀憐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중략... 너는 이미 10살이 지났고 너의 성장을 보니 앞날을 기대할 수가 있구나. 증가를 重創하고 또한 祠堂을 세웠으며, 지난 달 16일에는 神主를 새 祠堂으로 모셨으니 우리의 할 일은 다한 셈이다. 비록 죽는다 한들 무슨 여한이 있겠는가...隆慶元年十二月初六日¹⁹⁾

이라 한 것이다. 여기에 財主인 富弼 妻의 자필, 富弼과 從班 내외종 간인 富倫과 琴應夾의 증인 자필 및 현감의 수결과 함께 적으면서 富弼이 증가를 중창하고 祠堂을 새로 지었다고 했다. 종전까지 富弼 대에 後彫堂을 세웠다는 구전을 넘어 정확한 연대를 규명할 수 있는 단서라 하겠다. 이미 11월에 새로 지은 祠堂으로 神主移安도 마쳤다고 했다. 기록한 시점인 12

『奉祭祀盡誠敬 教子孫以孝悌』

14 『烏川君子里』, p.53, 蔡濟恭 撰, 「雲巖諱緣神道碑銘」, 「公顧不樂進取 爲養乞外除義興縣監 丙戌因世父喪解官 戊子授典籍 自是遷工禮二曹正郎 間拜司憲府持平 庚寅出守興海郡 居五年以事遞丁父憂 廬墓盡哀 鄉黨感服」, 「戊戌以軍資監正 出星州牧使 以星距鄉遠 不便於養 上章乞換近邑」

15 『烏川君子里』, p.66, 金祖淳 撰, 「文純公諱富弼謚狀」, 「公妾性孝友剛正制行謹嚴其在雲巖公憂杖而後能起執禮一遵古儀其後喪太夫人及母夫人亦如之鄉黨莫不稱服晨起必拜廟四時必有祭祭之日必沐浴致潔至老不懈」, 「教子弟必以孝悌忠信爲先嘗曰學問當以孝悌爲本」

16 『光山金氏烏川古文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p.468, 「家傳草」, 「祀之禮必盡誠敬 極力備物以至精潔 齋戒肅慎 著存不忘乎心 祭畢則必愀然不樂 有不盡情之嘆」라 하여 제사의 절차와 법식을 유달리 강조하고 있다.

14 『烏川君子里』, p.53, 蔡濟恭 撰, 「雲巖諱緣神道碑銘」, 「公顧不樂進取 爲養乞外除義興縣監 丙戌因世父喪解官 戊子授典籍 自是遷工禮二曹正郎 間拜司憲府持平 庚寅出守興海郡 居五年以事遞丁父憂 廬墓盡哀 鄉黨感服」, 「戊戌以軍資監正 出星州牧使 以星距鄉遠 不便於養 上章乞換近邑」

15 『烏川君子里』, p.66, 金祖淳 撰, 「文純公諱富弼謚狀」, 「公妾性孝友剛正制行謹嚴其在雲巖公憂杖而後能起執禮一遵古儀其後喪太夫人及母夫人亦如之鄉黨莫不稱服晨起必拜廟四時必有祭祭之日必沐浴致潔至老不懈」, 「教子弟必以孝悌忠信爲先嘗曰學問當以孝悌爲本」

16 『光山金氏烏川古文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p.468, 「家傳草」, 「祀之禮必盡誠敬 極力備物以至精潔 齋戒肅慎 著存不忘乎心 祭畢則必愀然不樂 有不盡情之嘆」라 하여 제사의 절차와 법식을 유달리 강조하고 있다.

17 『烏川君子里』, p.98, 李象靖 狀, 「嶺南左道義兵大將垓行狀」, 「壬午遭憂 哀毀踰制 節文一遵 朱文公家禮 人有言 古禮

일은 종가의 증창과 新廟의 공사를 끝낸 지 한,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때였다. 따라서 富弼이 舊家를 증창하고 新廟를 건립한 시기는 隆慶元年이란 연호의 1567년에 해당한다. 종가를 증창하면서 新廟와 함께 당연히 祭廳인 後彫堂도 새롭게 건립한 것이다.

따라서 後彫堂은 1567년, 즉 宣祖元년에 건립되었다. 종래 宣祖年間이란 주장도 잘못은 아니다. 다만 1567년에서 1608년까지의 30년이 넘는 재위기간에다 임란이 문화사적 분기점이 되는 점에서 양 시기를 걸치는 宣祖年間이란 학술적 시대설정의 차원에서 미흡한 것이었다.

그러면 당시에 後彫堂이 건립된 것을 방증하는 기록들을 보자. 먼저 『宣城誌』 烏川各名堂亭臺 조에는

後彫堂은 金孝盧의 옛 집이다. 세운 지 오래되어 무너지니 손자 富弼이 새롭게 고쳐 짓고 당을 後彫堂이라 이름 지었다. 이 堂은 烏川 金氏 門中의 大宗家로서 春秋로 자손들이 그곳에 모인다.²⁰⁾

고 하여 富弼이 옛 집을 새롭게 고쳤다고 했다. 이는 「傳係文記」에서 말하는 宗家の 증창을 의미한다. 堂號도 이때 정했으니 옛 집을 새로 지으면서 新廟와 함께 後彫堂도 지은 것이다. 그리고 춘추로 문중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 했다. 節祀나 家禮, 門中宗會와 같은 행사로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제사였다. 後彫堂은 제례를 행하기 위해서 건립된 祭廳인 것이다.

그런데 金祖淳이 쓴 富弼의 「文純公諱富弼諡狀」에는

뜰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고 堂의 이름을 後彫라 扁額했는데 그 뜻을 아는 이가 없었다.²¹⁾

고 하여 주인의 절개를 비유해서 後彫堂으로 이름지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낙성에 즈음한 退溪의 전설로 『安東文化圈學術調查報告書』에

後彫堂은 落成 때 退溪를 초대했다. 退溪는 後彫堂이 공부하는 선비의 집으로는 너무 크고 화려하다 하여 오르지 않고 맞은 편 富儀의 후

子 挹淸亭에 앉아 바라보며 後彫堂의 懸板을 써 놓고 그냥 돌아갔다.²²⁾

고 했다. 동생 富儀를 비롯한 七君子들이 각기 자신들의 別墅를 갖고 있었던 데 반하여 富弼은 그렇지 못했으므로 종가를 重創하면서 後彫堂을 신축한 것이다. 1567년의 건립을 이란 방증할 뿐 아니라 건물의 성격도 시사한다. 退溪가 「後彫梅答」이란 두 편의 시 말미에 쓴

어제 들으니 堂을 너무 화사하게 지어서 梅花의 韻格에 맞지 않을까 두려워서 彦遇가 이로써 병을 삼는다가에 말절에 비친 것이다.²³⁾

란 귀절에도 선비가 살 집으로 堂을 너무 화사하게 지어 병을 얻을 정도라 했다. 이에 退溪는 시를 지어 富弼을 위로하고 화답했던 만큼 「傳係文記」에서 말하는 1567년이 後彫堂의 初創 연대임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다.

한편 後彫堂의 건립에는 당시 향중의 가장 뛰어난 工匠들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다만 私家の 건립에 관청의 工匠들이 동원될 리는 없고, 半農半工의 장인들로는 기술이 부족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능한 기술자는 지역의 寺僧들일 것이다. 이 가문에서 佛寺를 경영한 사실에 비춰보면 後彫堂의 건립에 이들을 동원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宣城誌』 佛宇 조에

雲巖寺는 縣의 남쪽 七里 魚吞山 위에 있다. 金監司 緣이 승려들에게 짓게 하여 遊樂과 休息處로 삼았다. 壬亂 때 불타던 것을 丙午년에 손자 光繼가 승 德安으로 하여금 重創하게 하고 승려들이 거주하며 지키게 했다.²⁴⁾

고 하여 富弼의 부친 緣이 자신의 호를 딴 雲巖寺를 지어 휴양처로 삼았던 일과 1606년에 緣의 증손자 光繼(1580-1646)가 승 德安으로 하여금 증창토록 한 사실이 그것이다.

당시 사찰에서는 堂宇 조영을 위한 자금자족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佛舍는 화려한 법

22 『安東文化圈學術調查報告書』, 成均館大學校, 1967, p.104

23 李滉, 「退溪集」 卷五, 「昨聞彦遇 以堂制頗奢 恐不稱梅韻爲病 故未絶云」

24 『國譯宣城誌』, p.409, 佛宇條, 「雲巖寺在縣南七里 魚吞山上 金監司緣命僧構庵 以爲遊息之地 壬辰兵亂中爲人放火 至于丙午曾孫光繼 追感先世遺蹟 命僧德安重創 巋然無異前樣 俯臨洛川恒爲養正之所 僧三四人恒居守之 可謂肯構堂矣」

20 『國譯宣城誌』, p.352, 烏川各名堂亭臺條, 「後彫堂金孝盧 舊家年久頽頽 其孫富弼改舊易新名 其堂曰後彫堂 此烏川金門大宗家也于其孫春秋同會」

21 『烏川君子里』, p.66, 金祖淳 撰, 「文純公諱富弼諡狀」, 「植松栢于庭 扁其堂曰後彫 人莫能原其意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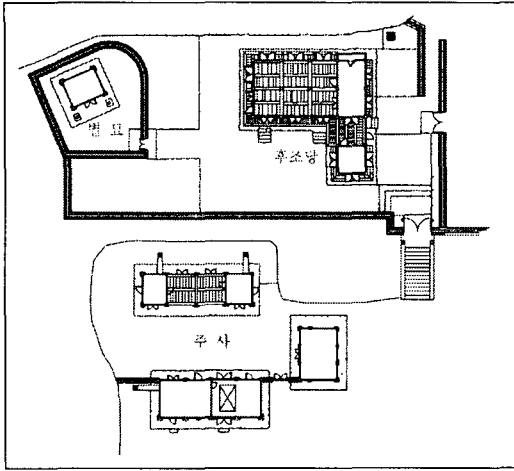


그림 1 후조당 일괄 배치도

식이 요구된 만큼 뛰어난 專業的 승장들도 많았다.²⁵⁾ 退溪도 陶山으로 낙향해서 陶山書堂과 隴雲精舍를 지을 때 승려들의 도움을 받은 바²⁶⁾ 있었다. 이 가문은 佛寺를 직접 경영했으므로 비슷한 시기의 後彫堂 건립에 雲巖寺의 승장들이 동원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한 것이다.

3-2. 翼廊의 增築과 現況

後彫堂이 초창 이후 언제, 어떤 형태로 증수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실측조사 때 겹처마와 홑처마의 경계, 우물마루의 구조, 窓戶 수법 등에서 다른 점들이 발견되었다. 이것이 제작



그림 2 후조당 전경

연대의 차이에 비롯되었다면 몇 차례의 증수를 거쳤음을 뜻한다.

우선 대청의 서쪽 뒷 柱間에는 북쪽과 같은 중간설주가 있는 쌍여닫이 판장문이 설치되고, 앞 주간에는 높이가 다른 외여닫이 널굽띠살문 두 짝이 연결해 있어서 전후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초창 때의 대청 남쪽 세 주간은 개방되어 있었으나 증수 때 4분합 들어열개 띠살문이 부가된 증거일 수 있다. 또 두 칸 온돌방 동쪽 외벽 두 주간에는 외부 툇마루로 각각 쌍여닫이 띠살문이 달려 있으나, 두 출입문의 기능이 같은데도 높이가 다르고 문틀의 결구수법도 다르다. 그리고 두 문에는 다른 문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중간설주가 없어서 초창 때의 것이 아니며, 동시에 설치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두 온돌방 사이의 마루 동쪽 벽에 있는 살림집에서 대청마루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문틀만 설치되어 있어 석연치 않다. 북쪽 처마의 서쪽 끝에 있는 서북쪽 추녀 부근의 겹처마도 상식을 벗어난다. 모두 남쪽 한 칸 온돌방과 한 칸 마루가 증축되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 다.

이러한 증축은 초창 이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익랑 1칸 온돌방의 세 곳 중간설주가 있는 쌍여닫이문과 문틀이 그 증거이다. 그렇다면 1567년의 초창 당시에는 6칸 祭廳과 2칸 온돌로 이루어졌던 것이 이후 1칸 온돌방과 1칸 마루가 부가된 오늘의 익랑 형태로 평면이 변화된 것으로 된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는 차후의 문헌 발굴과 함께 해체조사로 밝혀질 필요가 있다. 원래 祭廳으로 지어졌던 것이 언제, 어떤 목적으로 別堂 기능이 부가되고, 지금의 형태로 개조되었는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後彫堂은 초창 이래 祠堂과 廚舍와 함께 살림집과 떨어져서 별도의 영역을 형성했다. 지금도 別廟 四脚門과 함께 살림집과는 별도의 영역을 이룬다. 祭廳인 後彫堂을 중심으로 그 서쪽에 담으로 구획하여 別廟를 두고, 남동쪽에 四脚門을 세우고 5~6m 높이의 계단을 설치하여 廚舍로 연결되게 배치했다. 이러한 배

25 徐致祥, 『朝鮮王朝 願堂寺刹의 造營에 관한 研究』,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0, p.251

26 李滉, 『退溪集』, 『陶山雜詠并序』, ‘有浮屠法蓮者幹其事俄而蓮死 淨一者繼之 自丁巳至于辛酉 五年而堂舍兩屋粗成可棲息也’

치는 祭廳에서 廚舍로 직접 통하게 했던 1974년 전과는 다르다. 祭廳에서 廚舍로 통하는 출입구는 지금과 달리 정면 남쪽에 있어서 직접 출입이 가능했다. 廚舍는 祭廳 부속건물이므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부지의 높이차를 두지 않았다.

지금의 後彫堂은 거친돌 막쌓기로 축조한 기단 위에 남향으로 앉아 있다. 평면은 서쪽의 6칸(도리방향 3칸, 보방향 2칸) 대청에 동쪽의 2칸(도리방향 1칸, 보방향 2칸)의 온돌방을 결합하여 몸체로 삼고, 다시 2칸 온돌방 남쪽으로 마루 1칸과 온돌방(冊房) 1칸을 차례로 붙여 익랑을 만들어서 전체가 7자형의 평면을 이루며, 2칸 온돌방 북쪽 벽에는 1자 반 깊이의 다락받침을 만들었다. 몸체만을 보면 이 지역에서 흔한 祭廳 형식이다. 6칸 大廳과 翼廊 부분의 1칸 마루에는 우물마루를 깔았는데 대청 마루의 동귀틀과 마루널 치수가 익랑 마루의 두 배 정도로 차이가 있어 수법이 다른 만큼 초창 이후에 익랑이 부가되었음을 증명한다.

외부로는 네 면에 걸쳐 너비 1자 반 정도의 뒷마루를 덧달았다. 남쪽으로 돌출하여 익랑을 이루는 1칸 온돌방 세 면의 뒷마루는 바닥 높이를 내부 온돌방보다 1자쯤 높게 해서 익랑을 가마 모양으로 만들었다. 익랑을 경쾌하게 보이게 하는 시각 효과를 더해 주는 발상이다.

지붕은 팔작지붕에 부연을 단 겹처마를 올렸는데 이 겹처마는 대청의 남쪽과 서쪽, 1칸 온돌방의 서쪽 처마에 한하고, 살림집에 면한 동쪽 산록에 면한 북쪽과 1칸 온돌방의 남쪽 처마에는 홑처마를 올렸다. 외래객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홑처마를 구성한 뜻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북쪽 처마 서단부의 한 칸 정도에만 겹처마를 올렸는데, 이는 후대에 익랑 부분을 증축하면서 생긴 결과로 보여진다.

기둥머리 결구 수법으로는 장혀수장 집에 해당하는데, 대량이나 충량은 평주 위에서 주심도리와 장혀에 맞물리도록 결구되고 그 밑은 보아지가 받도록 했다. 이 보아지는 외부에서는 雲形을, 내부에는 波蓮形을 초각했다. 또한



그림 3 후조당 실측도면

향으로 단장혀를 설치했다. 그런데 첨차형의 단장혀에는 유례가 흔치 않는 간결하고 독특한 형상의 초각이 있어 祭廳의 위계를 돋보이게 하는 장식 효과가 있다. 이러한 민도리집의 주

두 결구수법은 陶山書院 尙德祠와 典教堂, 그리고 충청도의 別堂인 同春堂 平遠亭 雙淸堂 松崖堂 霽月堂 등에서도 볼 수 있다. 다만 그 건물들에는 초각이 있는 첨차형의 단장허가 없는 점이 다르다.

가구는 전후 평주 위에 대랑을 걸치고, 그 위에 소로를 올린 동자주대공을 세워서 종랑과 중도이를 받게 했다. 종랑 위에는 첨차와 소로로 짠 두공과 波蓮草刻의 판대공으로 된 솟을대공을 만들어 중도리와 장혀를 받게 했다. 전형적인 5량가의 형식이나 동자주대공과 판대공의 형상이 고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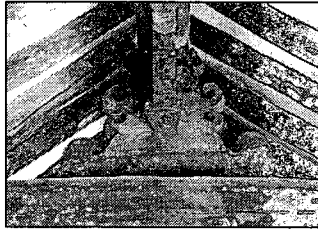


그림 3 파런초각 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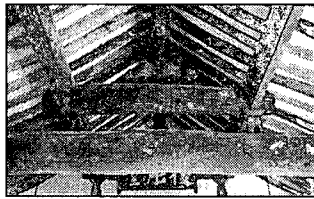


그림 4 후조당 천정가구

대청의 남쪽 세 주간에는 각각 들어열개 4분합 띠살문을 걸었으며, 북면 세 주간에는 각각 중간설주가 있는 쌍여단이 판장문을 달았다. 대청 서쪽 뒷 주간에는 북쪽과 같은 중간설주가 있는 쌍여단이 판장문을 달았으며, 앞 주간에는 외여단이 판장문과 외여단이 널굽띠살문을 달았다. 1칸 온돌방의 외부 세 면에는 중간설주가 있는 쌍여단이 띠살문을 달고, 마루 쪽에는 외여단이 띠살문을 달았다. 2칸 온돌방의 남쪽 마루 방향으로는 외여단이 띠살문을 달고, 동쪽 외벽 두 주간에는 각각 쌍여단이 띠살문을 달았는데 다른 쌍여단이문에 있는 중간설주가 없는 것이 예상 밖이다.

2칸 온돌방과 대청 사이 양 주간에는 맹장자로 된 간막이 벽을 설치했다. 외여단이 맹장자문과 쌍여단이 띠살창문을 셋문으로 필요할 때 대청과 온돌방을 하나의 공간이 되도록 벽 전

체를 들어열개식으로 개방되게 했다. 유레가 드문 古式의 개구부 구성은 면적을 넓힐 수 있고, 별실로 구획할 수 있어 기능적으로 세심하게 배려된 공간구성의 예라 하겠다.

4. 後彫堂의 特性和 價値

4-1. 廳房結合 1字形 平面

後彫堂은 몸체만 보면 서쪽에 도리방향 3칸 보방향 2칸의 통칸 6칸 마루를 깔고 동쪽에 도리방향 1칸 보방향 2칸 통칸의 온돌방이 부가되어 있어서 마루와 온돌방이 결합된 一字形 평면형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廳房 결합의 一字形 평면은 비슷한 시기의 이 지역 다른 가문의 別堂이나 別墅의 일반적인 유형이다. 예로서 내앞 靑溪古宅이나 河回 立巖古宅의 祭廳도 평면형식이 같은 유형으로서, 도리방향 4칸, 보방향 2칸의 규모에 6칸 통칸의 마루와 2칸의 온돌방을 부가한 一字形 평면이다. 다만 靑溪古宅은 後彫堂과 같이 대청마루의 좌측에 온돌방을 둔 반면, 立巖古宅은 대청마루의 우측에 온돌방을 배치한 것이 다를 뿐이다. 이러한 평면형식은 朴彭年의 「雙淸堂記」²⁷⁾나 退溪의 「陶山雜詠」²⁸⁾의 내용과 같이 여름용의 마루와 겨울용의 온돌로 구성되는 평면형식은 한서의 차가 심한 우리의 기후조건에서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었다.²⁹⁾

그런데 이 지역의 서원과 향교의 강당에서도 후조당의 평면형식과 유사한 점을 볼 수 있다. 이곳과 가까운 紹修書院 講堂과 陶山書院 典教堂, 禮安鄉校 明倫堂 등의 평면이 後彫堂과 세부구성까지 똑 같다. 비슷한 시기에 일정 지역 내에서 지어진 별당이나 서원, 향교의 강당 등

27 「東國與地勝覽」 卷18 懷德縣 樓亭條, 朴彭年 記, 「雙淸堂記」, 「乃於祠東別立堂凡七間 堦其中以宜冬 而右闕之者三 豁其軒以宜夏 而左闕之者三」

28 李滉, 「退溪集」, 「陶山雜詠并序」, 「堂凡三間 中一間玩樂齋 東一間巖栖軒 又合而扁之曰陶山書堂」

29 琴詩述 撰의 이곳 濯淸亭 건물에 관한 「濯淸亭移建上棟文」에 「涼軒燠室適宜稍損間架」라 하여 서늘한 마루와 따뜻한 방은 마땅히 間架의 규모를 줄여 맞추었다고 했다.

에서 마루 한편에 온돌방을 부가하는 一字形 평면형식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퇴계의 영향하에 있던 서원이나 향교, 특정 가문의 건축에 하나의 일 반화된 유형이 자리잡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 하게 된다. 그러면 이들 건축의 형식을 살펴 보자.

陶山書院 典敎堂은 後彫堂을 빼어 닮았을 정도로 평면형식이 같다. 典敎堂은 退溪沒年 4년 뒤인 1574년에 건립된 도리방향 4칸, 보방향 2칸의 一字形 평면으로 홀처마에 팔작지붕을 올린 민도리집이다. 동쪽 6칸에는 통칸으로 우물마루를 깔고 서쪽 2칸에는 온돌방을 놓았다. 後彫堂의 몸체 부분과는 대청과 온돌방의 위치가 바뀌었을 뿐 온돌방 뒷편에 반칸 깊이의 벽장을 둔 것도 같은 형식이다. 다만 後彫堂에서는 네 방면에 걸쳐 뒷마루를 깔고, 대청 부분의 전면 세 주간에는 칸마다 4분합문을 달았는데 반해서, 典敎堂에서는 우측면과 배면에만 뒷마루를 깔고, 대청 부분의 전면은 개방한 것이 다르다.

禮安鄉校 明倫堂은 1415년에 창건되었다. 이후 1490년과 1569년에 중수되었고, 1589년에 月川 趙穆(1524-1606)이 중창했는데 도리방향 4칸, 보방향 2칸의 一字形 평면으로 홀처마에 팔작지붕을 올렸다. 좌측 6칸에는 통칸으로 우물마루를 깔고, 우측 2칸에는 통칸의 온돌방을, 그 뒤편에 벽장을 둔 평면형식은 後彫堂이나 典敎堂과 일치한다. 대청의 배면 주간에는 칸마다 쌍여닫이 관장문을 달고 전면을 개방시킨 점도 같지만 뒷마루가 없는 점이 다르다.

1602년에 중창된 것으로 보이는 지금의 紹修書院 강당은 도리방향 4칸, 보방향 3칸의 규모로 남측 통칸 9칸에 우물마루를 깔고, 북측 3칸 중 동편 2칸에 온돌방을, 그리고 서편 1칸에 마루방을 놓았다. 이 건물은 규모로 본다면 後彫堂이나 典敎堂보다 도리방향으로 1칸이 더 넓지만, 전체적인 평면 형식은 똑 같은 유형이다. 특히 右廳左房式 대청과 온돌의 배열이든지, 반침 대신 2칸 온돌의 뒤편 마루방을 冊房

으로 쓰는 것, 그리고 4면에 걸친 뒷마루 등은 後彫堂 典敎堂과 똑 같은 형식이다. 그런데 『朝鮮古蹟圖譜』의 사진³⁰⁾에 강당의 정면은 지금처럼 합각이 있는 남면이 아니라 동면임이 분명하다. 원래는 강당의 대청 동면의 세 주간은 개방되어 있었고, 서, 남면은 後彫堂과 마찬가지로 관장문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남방에 있는 대문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남면을 출입구로 개방하면서 관장문이 철거된 것 같다.

어떻든 이들 건물의 연대는 後彫堂이 1567년으로 가장 앞서고, 典敎堂이 1574년, 禮安鄉校 명륜당이 1589년이며, 紹修書院 강당이 1602년으로 나타난다. 이는 중창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당시 이전의 규모나 형식을 계승할 수도 있으므로 시대가 앞선다고 해서 반드시 후대의 건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退溪는 禮安鄉校의 운영에 깊이 관여했고, 중창한 趙穆은 退溪를 가장 가까이서 모신 八高弟의 한 사람이다. 趙穆은 奉化縣監으로 있던 1579년에 봉화향교를 중수했으며, 退溪沒後에는 문집의 編刊과 祠院의 건립 및 봉안 등에 있어서 항상 성의를 다하여 陶山書院 尙德祠에 유일한 배향자가 되었을 정도였다.³¹⁾ 趙穆은 陶山書院의 건립에 참여했으며, 1589년에는 禮安鄉校를 重創했다.

紹修書院은 退溪가 豊基郡守로 있으면서 사액을 청원하여 1550년에 明宗으로부터 紹修書院이란 친필 扁額을 받아 賜額書院의 시초가 되었다. 특히 退溪가 陶山으로 돌아 온 직후인 1556년에 榮川郡守 安瑞에게, 그리고 이듬해에 豊基郡守 金慶言에게 각각 편지를 보내어 서원의 운영부실을 따졌을 정도로 깊이 관여했다.³²⁾ 1602년의 중창도 그의 門人들이 주도했으므로 紹修書院 강당도 富弼과 趙穆 등이 주도했던 後彫堂이나 陶山書院과 禮安鄉校의 강당의 건립은 기본적으로 退溪門人의 건축경영

30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卷 十一, p.1598

3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20권, 1994, p.341

32 李滉, 『退溪集』, 卷 十二, 「擬與榮川守論紹修書院事」, 「擬與豊基郡守論紹修書院事」

이란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와 같이 退溪의 문하에 있던 가문의 별당이나 지역 서원과 향교의 강당건축에 이러한 廳房結合의 一字形 평면형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일반화된 유형이라 단언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이를 우연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 특히 전교당의 경우 이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지어진 後彫堂의 주인인 富弼이 그 건립을 주관했다. 그는 스승이 죽자 陶山書院의 창건에 누구보다 앞장섰다. 터를 직접 고르다가 하면 많은 재산을 내놓아서 공사비를 마련했던 만큼 그가 건축유형을 검토하고 법식을 결정하는 일에 깊이 관여했음은 틀림없다. 7년 전에 자신이 짓고 退溪가 현역했던 後彫堂의 건축형식을 典教堂의 건립에 모본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충

분하다.

이러한 건축형식이 유사성과 함께 그 건립의 배경을 감안하면 적어도 後彫堂 건립을 전후하여 퇴계의 영향권에 있던 이 지역에서 일반화된 하나의 유형이 자리잡았음을 상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1589년의 禮安鄉校 明倫堂이나 1602년의 紹修書院 講堂의 건립에 당시 이 지역에서 준용되던 건축법식과 제도를 따랐을 것이며, 이 때 後彫堂이 하나의 모본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평면 입면 형식이 당시 이 지역의 향교나 서원의 강당 건축에서 정착된 유형이라고 볼 때 後彫堂도 典教堂과 같이 대청 전면의 세 柱間은 지금의 4분합 들어열개문이 아니라 개방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一字形 평면이 당시의 보편적인 유형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後彫堂의 1칸 마루와 1칸 온돌로 된 익랑은 추후 부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추정은 실측조사에서 발견된 수법상의 여러 차이점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4-2. 들어열개문과 중간설주

後彫堂에는 古式의 창호 유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대청과 온돌방 사이의 들어열개문인데 기후조건이나 수용인원에 따라 두 공간을 통합, 분리하는 역할을 겸할 수 있다. 들어열개문에는 그 일부에 외여단이 문이나 쌍여단이 창을 두어 일부를 개폐할 수 있고, 전체를 들어 열고 닫을 수도 있다. 또 다른 예는 대청 전, 후, 측면의 중간설주가 있는 쌍여단이 띠살문과 판장문이다. 중간설주가 있는 문과 창은 온전한 遺構가 흔치 않은 임란 이전 古式의 수법이다.

6칸 대청과 2칸 온돌방 사이의 두 주간 벽체는 전체가 개구부의 역할을 하도록 칸마다 통째로 들어여는 들어열개 맹장자문을 달았다. 남쪽 柱間은 전체가 들어열개 맹장자문인데, 그 가운데에는 중간설주가 있는 쌍여단이 띠살창을 달았다. 북쪽 柱間에는 들어열개 2분합 맹장자문을 달았는데, 남쪽에 붙여 외여단이 맹장자 출입문을 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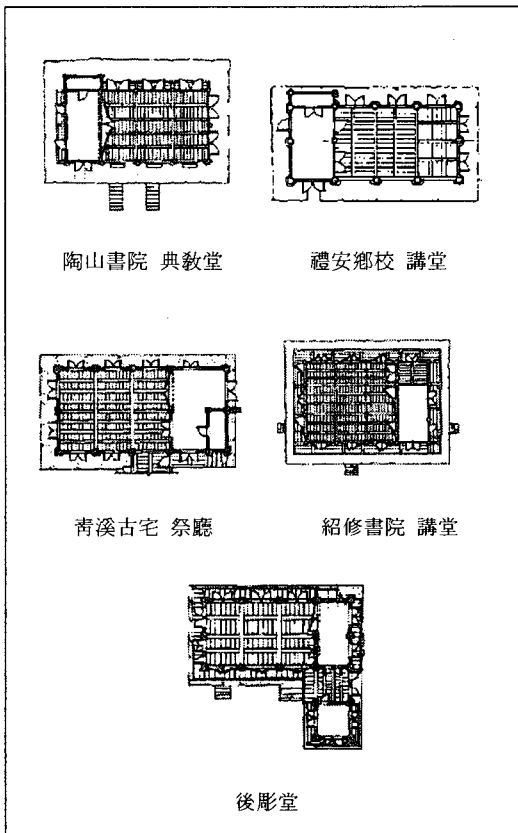


그림 6 강당 및 제청 평면 비교도

後彫堂에는 여러 곳에 중간설주가 있는 쌍여단이 띠살문과 판장문도 잘 보존되어 있다. 중간설주가 있는 쌍여단이 띠살문은 1칸 온돌방의 동남서쪽 세면에 각각 하나씩, 2칸 온돌방의 남쪽과 서쪽 들어열개문에 각각 하나씩 남아 있다. 중간설주가 있는 쌍여단이 판장문은 대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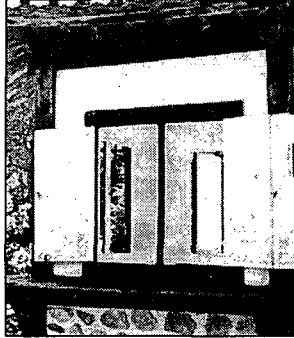


그림 7 후조당의 중간설주

북면 세 柱間과 서면 북쪽 주간에 칸마다 하나씩 남아 있다. 현재는 대청의 남면 세 주간에 칸마다 들어열개 4분합 띠살문이 있으나 원래는 陶山書院의 典敎堂이나 禮安鄕校 明倫堂, 紹修書院의 강당과 같이 개방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문헌조사나 해체수리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대청과 온돌방 사이의 벽체를 들어열개식으로 처리한 예는 이 지역 서원이나 향교의 강당에서 쉽게 찾아진다. 陶山書院 典敎堂의 대청과 온돌방 사이의 가운데 기둥이 없는 벽체에는 두 칸 전체가 들어열개 맹장자문으로서 완전히 개방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後彫堂에서는 간벽의 좌, 우칸이 서로 다르게 구성지만 典敎堂에서는 좌우대청의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좌, 우에는 동일하게 각각 들어열개 2분합문이 달려서 전체로는 들어열개 4분합문으로 구성된다. 2분합의 두 문의 중간에 출입문으로 사용하는 외여단이 맹장자문을 하나씩 내고, 연결해서 두 배 폭의 넓은 들어열개 맹장자문을 달고 가운데에 외여단이 맹장자창을 하나씩 달았다.

典敎堂에도 여섯 곳에 중간설주가 있는 쌍여단이 띠살문과 판장문이 초창 때와 다름없이 잘 보존되어 있다. 온돌방 남측에는 중간설주

가 있는 쌍여단이 띠살문, 그리고 대청의 동측면 두 주간과 북측면 세 주간에 칸마다 중간설주가 있는 쌍여단이 판장문이 설치되어 있다. 紹修書院 講堂 대청의 북면은 세 주간인데 서쪽 夾間에는 쌍여단이 널굽 띠살문을 달아 冊房 출입이 가능하게 하고, 御間과 동쪽 夾間에는 각각 외여단이 맹장자문을 단 들어열개 2분합 맹장자문을 설치하여 온돌방 출입이 가능하게 했다. 벽 전체를 들어 열 수 있어 두 공간을 통합할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게 한 것은 後彫堂 典敎堂과 다를 바 없다.

紹修書院 강당에도 중간설주가 있는 쌍여단이 띠살문이 온돌방 동면과 冊房 북면의 두 곳에 남아 있다. 禮安鄕校 명륜당의 평면은 後彫堂, 陶山書院의 典敎堂, 紹修書院의 강당과 같은 유형이지만, 대청과 온돌방 사이의 벽체는 들어열개식이 아니고 고정된 벽체에 개구부를 낸 점이 크게 다르다. 서측 2칸 온돌방 벽체의 남쪽 주간에는 쌍여단이 띠살창을 달았으며 북쪽 주간에는 외여단이 널굽띠살문을 달아서 출입구로 사용하는데, 이는 後彫堂 등의 경우보다 후대의 형식임이 분명하다.

禮安鄕校 明倫堂에는 중간설주가 있는 쌍여단이 띠살문이나 판장문이 없고 東齋 온돌방 한 곳에 유구가 남아 있다. 몇 차례의 수리로 신재를 대체한 부분이 많은 탓으로 여겨진다.

한편 이 지역의 별당건축 등에서 대청과 온돌방 사이의 벽 전체를 들어열개로 만든 경우는 흔치 않다. 조선중기의 건립으로 알려진 奉化 酉谷 靑巖亭에는 서쪽 6칸 대청과 동쪽 2칸 마루 사이의 두 주간에 칸마다 들어열개 2분합 맹장자문을 달았는데, 북쪽 주간에는 맹장자 출입문과 불발기창을 내고 남쪽 주간에는 불발기창만 내었다. 내앞 靑溪古宅 祭廳에는 廳房 사이의 벽체 두 주간의 북쪽 주간에 들어열개 4분합 맹장자 문을 달아 벽 전체를 개폐하도록 했으며 가운데 두 짝에 불발기창을 내고, 남쪽 柱間에는 토머름 위에 쌍여단이 띠살창을 달았다.

이와 같이 後彫堂, 濯淸亭, 陶山書院의 典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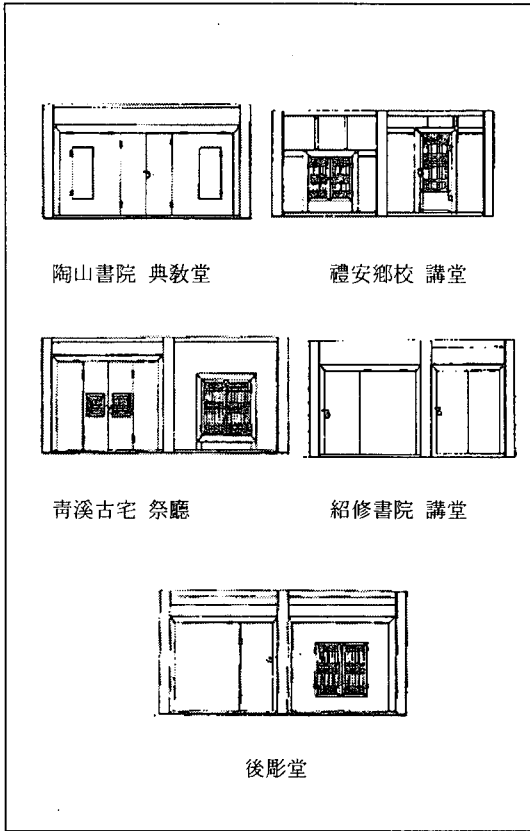


그림 8 강당 및 제청의 창호 비교도

堂, 紹修書院의 講堂, 西谷 靑巖亭, 川前 靑溪古宅의 祭廳 등의 廳房間 벽 구성은 평면형식과 마찬가지로 아주 유사하여 당시 이 지역에는 이러한 창호유형이 보편화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後彫堂의 창호구성과 개폐형식은 조선전기 이 지역의 건축제도와 관례를 잘 간직하고 있는 중요한 遺構라 하겠다.

4-3. 祭禮空間의 獨立的 構成

後彫堂은 초창 때부터 살림집과는 별도의 영역에 자리잡고 있었다. 『宣城誌』烏川 各名堂亭臺 조에 後彫堂은 光山金氏 禮安派 大宗가의 門會를 여는 장소³³⁾라 했다. 봄, 가을 두 차례

의 門會라면 문중 사람들이 참여하는 不祧位 春秋享祀이다. 그런데 光山金氏 宗가에서는 後彫堂을 ‘大廳’이라 불러 왔다. 원래 대청이란 통치하는 장소라는 의미의 ‘廳’에서 비롯되었고 신분의 상징과 권위를 나타내는 장소로 인식되었다. 살림집에서는 가장 위계가 높은 장소는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공간 즉 대청이며, 따라서 이 건축은 君子里에서 가장 위계가 높은 셈이다.

대청이란 이름은 안동 지역에서는 옛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다. 『宣城誌』汾川事蹟 堂亭各名 조에는 靑構堂³⁴⁾을 大廳이라 하고, 또 같은 문헌의 溫溪事蹟 堂亭各名 조에도 松堂³⁵⁾과 三栢堂³⁶⁾을 大廳이라 하여 모두 祭廳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별도로 된 後彫堂은 不祧位를 모신 別廟, 제수를 장만하는 廚舍와 함께 제례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대부분은 □자 모양의 살림집 사랑채에 대청을 두어서 제청으로 사용하며, 특히 별도로 廚舍를 갖춘 예는 거의 없다.

별동의 祭廳을 둔 것은 곧 제례의 절차와 법식을 원칙대로 고수하고자 했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특히 이 가문에서는 金孝盧와 증손 垓를 不祧位로 別廟에 神位를 모시고 춘추로 享祀해 왔다. 不祧位를 모시는 가문은 위대한 조상을 가졌다는 영예와 함께 문중의 단결도 강화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가문의 위세와 우월감을 높일 수 있었다. 더구나 이 가문은 退溪 등이 쓴 행장지에서 이러한 정신이 유달리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祠堂과 祭廳, 廚庫를 완비한 後彫堂 일곽은 『家禮』의 법식을 철저히 준수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틀림없다. 『家禮』에도 廚庫는 遺書, 衣物, 祭器 등을 보관하는 곳과 부엌을 합쳐서 3

34 『國譯宣城誌』, p.371, 汾川事蹟 堂亭各名條, ‘靑構堂在汾川村中 宗가大廳是也’

35 『國譯宣城誌』, p.368, 溫溪事蹟 堂亭各名條, ‘松堂李松齋先生大廳也 退溪先生書松堂二大字 揭於楣間尙存如昨’

36 『國譯宣城誌』, p.367, 溫溪事蹟 堂亭各名條, ‘三栢堂李監司濬大廳也 其孫有道追遠 有誠種三栢於堂西 因以名堂題名掛之’

33 『國譯宣城誌』, p.352, 烏川 各名堂亭臺條, ‘後彫堂金孝盧舊家…此烏川金門大宗가也于其孫春秋同會’

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어진 것으로 짐작되는 廚舍와 이를 祭廳인 後彫堂과 연결하는 夾門은 특히 주목된다. 종가의 살림집에 별도로 祭廳과 祠堂, 廚舍를 함께 갖춘 경우는 현재까지 그 유례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성은 祠堂과 祭廳을 별도 구역으로 형성하고 있어서 奉化 西谷의 冲齋古宅와 유사하다. 살림집과 별도로 도리방향 3칸 보방향 2칸의 祭廳과 祠堂이 함께 자리잡고 있어서 祭廳 공간이 별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祭廳은 바닥 전체를 통칸마루로 깔고, 제수를 준비하는 廚舍도 따로 마련되지 않아서 후조당과는 다르다.

祭廳이면서 사랑 공간의 기능도 겸하는 예는 이웃 川前 靑溪古宅, 河回 立巖古宅, 醴川 草礪古宅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모두 별당의 祭廳이 아니고 살림집과 연결된 점에서 後彫堂과 크게 다르다. 靑溪古宅의 祭廳은 後彫堂과 유사하지만 살림집과 연결되어 있고 부속된 廚舍는 없다. 金惠子は「義城金氏 내앞종가의 復原的 研究」에서 川前 靑溪古宅은 중문 앞에 있던 사랑채를 현재의 藏書閣 위치로 이전했다가 없애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그 古材를 전용하여 안채 대청을 증축하고, 祭廳과 중사랑을 연결하는 2층 회랑도 함께 증축했는데, 이때 祭廳의 온돌방을 반 칸 늘리고, 팔작지붕의 동쪽을 맞배지붕으로 바꾸면서 눈섭지붕을 달았다고 밝혔다.³⁷⁾ 祭廳의 원형이 크게 손상된 셈이다. 河回 立巖古宅 養眞堂의 경우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李錦度는「河回 養眞堂의 變遷에 관한 研究」에서 원래 不祧位祭를 위해 별채로 지어진 祭廳에 딸린 부엌이 침실과 책방으로 개조됨에 따라 祭廳과 안채가 연결되고 祭廳 서쪽에는 눈섭지붕이 덧붙혀진 것으로 고찰했다. 따라서 별채의 廚舍는 아니지만 제사 음식을 준비하기 위한 祭廳의 부엌도 침실과 책방으로 바뀌게 되는³⁸⁾ 등 후대로 오면서 많

이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靑溪古宅과 立巖古宅의 祭廳은 애초 독립된 祭廳으로 신설되었으나, 그 뒤 사랑방의 기능을 확장함에 따라 살림집과 연결되어 祭廳이 변질된 셈이다. 祭廳이 祠堂과 같은 영역에 자리잡고, 한쪽에 온돌방을 붙인 점에서 같은 형식이지만 살림집과 연결되는 것이 다르다. 그런 점에서 後彫堂 일곽은 임란 이전의 사대부 가문에서 『家禮』의 법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古式의 제례공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後彫堂의 건축적인 표현을 보면, 먼저 평면은 서쪽의 6칸 대청에 동쪽의 2칸 온돌방을 결합하여 몸체로 삼고, 2칸 온돌방 남쪽으로 마루 1칸과 온돌방 1칸을 붙여 익랑을 만들어서 전체로 ㄱ자형이 되게 했다. 특히 익랑은 신성한 祭廳 공간을 살림 공간에서 분리시켜 독립적으로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익랑의 1칸 온돌방 3면의 뒹마루는 바닥 높이를 온돌방의 바닥보다 1자쯤 더 높게 가마 모양으로 만들었다. 익랑 부분을 경쾌하게 보이도록 대비시켜 상대적으로 제청의 몸체 부분을 더욱 근엄하게 보이게 하는 시각적인 효과를 더해 주는 것으로 발군의 착상이라 하겠다.

後彫堂은 평범한 장혀수장의 5량가 2중량 가구집이지만 주심도리와 장혀 밑 단장혀와 宗樑을 받치는 동자주대공의 세부수법이 특이하다. 첨차형의 단장혀에는 다른 곳에서 그 예를 볼 수 없는 鬼面 형상의 단아한 초각이 있어서 장식 효과가 높다. 대청 내부의 종량을 받친 동자주대공은 형상이 고졸 간결하여 退溪의 懸板과 함께 祭廳의 숙연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최근까지 이러한 건축 의도가 변하지 않고 보존된 것은 유교적 이념과 규범을 철저하게 고수하고자 했던 이 가문의 가풍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37 金惠子, 「義城金氏 내앞 종가의 復原的 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78

38 李錦度, 「河回 養眞堂의 變遷에 관한 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82

5. 맺는 말

참고문헌

光山金氏 가문의 大宗家 祭廳인 後彫堂은 고 문서에 의하면 祠堂과 함께 宣祖元年인 1567년에 金孝盧의 손자 富弼이 초창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란 전, 또는 宣祖年間の 건립이라는 포괄적인 시기를 넘어서 건물의 정체성 연구의 중요한 단서가 제공되었다.

後彫堂은 초창부터 別廟, 廚舍와 함께 살림집과는 별도의 제례영역을 형성했다. 이후 별당 기능이 부가되면서 각각 1칸의 온돌과 마루로 된 익랑이 증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後彫堂의 廳房結合 一字形 평면과 廳房 사이의 벽을 들어열개식 수법은 陶山書院 典教堂과 거의 같은 형식이며, 그 밖에 禮安鄉校 明倫堂, 紹修書院 講堂 등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궁극적으로 退溪 문인들이 건립에 관여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 가문의 『家禮』에 철저했던 정신은 초창 이래 증축된 익랑 부분을 포함한 건축공간과 형태의 시각적 표현에 잘 반영되어 있다. 특히 別廟, 廚舍와 함께 살림집과는 별도 영역을 형성한 조선초기 古式을 전해주는 소중한 사례이다. 또한 들어열개문은 不祧位祭, 門中宗會, 文客 초청 등 행사 규모에 따라 자유자재로 개폐할 수 있게 고안된 것이며, 들어열개문의 개구부는 공간의 가변성을 한층 높여 주는 장치로서 뛰어난 기능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後彫堂의 건립 연대를 밝혀내는 한편으로 실측도면을 작성하고 건축특성과 가치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君子里에는 後彫堂 외에도 살림집을 비롯해서 여러 別堂과 別墅들이 옮겨져 있으나 이들에 대한 연구는 다음 과제로 남아 있다. 이진된 건축들을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려면 무엇보다도 자료의 발굴과 정밀조사 작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1. 『國譯宣城誌』, 國譯宣城誌發刊推進委員會, 1993
2. 『嶠南誌』 第一卷, 旰晟社, 1985
3. 『國譯永嘉誌』, 安東郡, 1991
4. 『光山金氏禮安派譜』, 1993
5. 『光山金氏 烏川古文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6. 『烏川 君子里』, 烏川文化財移建紀念事業會, 1993
7. 『烏川 光山金氏略史』, 光山金氏 禮安派門中, 1999
8. 李滉, 『退溪集』, 韓國文集叢刊 29, 景仁文化社, 1996
9. 『安東澗水沒地區古家移轉復元報告』 學術調查報告 第4冊, 영남대학교 박물관, 1982

A Study on *Hoojo-dang* in *Gunja-ri, Yeaan*

Seo, Chi Sang

(Professor, TongMyong Univ. of Information Tech.)

Abstract

Hoojo-dang is the *Beol-dang* of *Gwangsan Kim's* family in *Gunja-ri, Yeaan*. This study aims to reconstruct the architectural drawings of the building through actual measurement, and by investigating documentary records of *Kim's* family, to trace and infer when the building was originally constructed. In doing this, it enables to identify and describe the architectural types and characteristic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Hoojo-dang* was established in 1567 by *Kim Bu-pil*(1516-1577). From the beginning, *Hoojo-dang*, *Byeol-myo*(family shrine) and *Ju-sa*(shrine kitchen) were situated in the separate area from *An-chaе*(main building). Later the *Ik-rang*(additional transept part) of *Hoojo-dang* was added to its main body as a room for entertainment.

2) The types of floor plan and windows of *Hoojo-dang* are similar to those of the lecture halls of *Dosan-seowon*, *Sosu-seowon* and *Yeaan-hyangyo* nearby. The main reason for the similarity of floor plan and window types in those buildings is that the students of the great Korean *Confucian*, *Lee Hwang* in 16th, managed and controlled those constructions.

3) The separate area composed of *Hoojo-dang*, *Byeol-myo* and *Ju-sa* was mainly designed for satisfying *Confucian* ceremonial principles. In addition, there are lifting doors designed for elevating the spatial flexibility.